

2007년 불교문화계 결산

영화 · 무용 우울
미술 · 음악 방긋

올 한해 불교문화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미술과 음악은 강한 약진을 한 반면 연극은 지난해 수준이었고, 영화와 무용은 후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공 스님의 조각 '의식의 부처님'

미술

미술

개인전을 비롯해 불교미술의 특색을 살린 미술관과 박물관의 테마 전시회가 줄을 이은 것이 인상적인 반면, 그룹전이나 전반적인 장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유난히 부족한 것이 올해 미술계의 특징이다.

흥으로 생명력을 불어 넣는 소조불상작가 김영수 씨의 불입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선화가 정현 스님의 '날마다 좋은날'展, 40여년 동안 나비 그림만을 수행으로 생각하며 그려온 대흥 스님(천안 금강사 주지)의 '나비 그림전' 등이 상반기 화랑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인 불화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연 '석정 연묵전'은 불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반기에는 군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빛어온 도자가 100여점을 선보인 '설봉 스님의 도자전'과 속가례제인 원종 스님(밀양 돈오선원장)·비공 스님(분당 대도선원장)의 추상화 및 조각전, 오랜만에 전시회를 마련한 관화가 강행복씨의 '송광사 관화전', 특산 스님의 '달마전'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서예인생 52년을 정리한 남석 이성조 선생의 '서예전', 이혜기 화가의 '금화 전시회', 최근 매니큐어로 그린 그림전을 연 사찰음식전문가 정산 스님의 '관조와 명상展', 허허당 스님의 '화엄세계전' 등을 한해 50여 작가가 불교관련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박물관 등의 기획전시회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화정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화정박물관이 내년 10월까지 기획한 '탕카의 예술展'은 수준 높은 전시회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람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산위의 여신들' '석가여래' '티베트 사자의 서와 정토' 등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 티베트 불화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의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역사박물관의 '중국 국보전'도 좀처럼 보기드문 전시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중국인들도 현지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국보들이 많이 전시된 이 행사에서는 '관음보살 좌상' 등 110여점의 불교유물도 선보여 불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큐레이터 이선오씨는 "요즘 일반 화랑가의 전시 경향은 같은 장르의 작가 다른 작가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룹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불교미술계도 선화나 달마도 등 비속한 장르의 작가들이 한데 모여 대형 그룹전을 많이 개최한다면 훨씬 더 불교미술을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악

몇 년 전부터 산사음악의 활성화 때문에 무대공연의 가뭄이 점점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아져서인지 올해에는 늘어난 개인 공연을 통해 체면 유지는 한 것 같다.

이중 활동이 유난히 돋보인 이는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이다. '불교음악'을 찾아 떠났던 김

찬불가요 콘서트 연 이종만 '좋은 벗 풍경 소리' 실장



음악



김덕영의 '양산사찰학춤'

무용



연극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을 주제로 한 연극 '환하여 환하여' 장면.

문화행정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여행에서 4년만에 돌아와 무대에 선 이 실장은 4월 문화일보 홀에서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을 주제로 대중가요 콘서트를 열었다. 반응이 좋아 10월에 앵콜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 실장은 15년간 어린이 찬불가 동요 제작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원문화상 예술부문에도 뽑혀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니르바나 팔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약진도 등을 두드러줄만하다. 불교계에서는 9년전 처음으로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를 창립해 주목을 끌었던 니르바나는 2005년 한때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몰렸지만 지난해 후원회 결성을 계기로 올 한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강령진 단장의 차별화된 기획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요인이다. 니르바나는 불교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특강과 함께 음악을 곁들여 들려주는 소규모 이색테마 음악회를 한달에 한 번씩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불교도 공부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관객에게 선사한다는 점에서 1년이 지난 지금은 고정적으로 매달 찾아오는 팬들까지 생긴 상태다. 또한 소아암 돕기 음악회를 열어 불교계 공연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후원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법승 스님도 꾸준히 전국을 누비며 찬불가요 대중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산사음악회도 올해 꾸준히 열렸다. 산사음악회는 2003년 30여 곳, 2004년 40여 곳에 이어 2005년 50여 곳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조금 줄어든 추세지만 그래도 산사음악회 대표사찰인 청량사, 월정사, 영평

사 등은 아직도 견재하다. 특히 영월 법흥사는 올해 산사음악회 사찰로 신규 편입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기획과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산사음악회들은 인기를 더한 반면 특색 없는 음악회들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알려진 천재음악가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맞아 독일의 윤이상 앙상블이 내한하는 등 8차례에 걸친 대규모 교향악 페스티벌이 국내에서 열린 것도 큰 이슈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국제 윤이상 음악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이외에도 한평생을 찬불가와 사랑을 나누며 살다간 불교계 최초의 전문 여성 지휘자 정유나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음악회를 바라오페라단과 고인이 평소 지휘를 맡았던 청룡마야합창단이 함께 추모음악회를 열어준 것은 두근두근 올해 훈훈한 불교음악계의 미담사제로 회자되고 있다.

무용

불교 무용계는 올 한 해 유난히 빈약했다. 안전한 불교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인명무전과 국립무용단이 바리공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통 창작춤 '바리바리춤 춤 디딤새' 등이 그나마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꼽을 정도였다.

민일 전통무용인 영산재 공연들이 없었다면 불교 무용계는 심각한 정도로 공연년을 겪었다.

꾸준히 범패와 작업무 공연을 해온 능화 스님(태고종 문화부장)과 법현 스님(불교무용연구소 소장), 일초 스님(인전수륙재 보호자) 등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꾸준히 영산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선보인 정도여서 내년 한해 강한 약진을 기대해 본다.

연극 · 영화

연극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면 영화 쪽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한 정체를 드러냈다. 연극 작품중 돋보인 것은 '2007 제25회 부산연극제' 기간 중 열린 '환하여 환하여'다. 이 작품은 원효 스님의 구도 여정을 잘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불교인문인 출신 김수현씨가 '회향송'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극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부산시립극단 정순지 씨가 맛깔스럽게 각색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작곡가 윤이상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편의 연극으로 올린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 등도 상연됐다.

문화행정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문화발전을 위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문화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문화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문화관계자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 미술, 공연, 문학 및 출판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가해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화부는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 문화정책 계획 수립에 대거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간담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주일 기자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 위-아래, 다시 앞-뒤로 열기 3번 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슬 수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수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운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운수가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십시오 연락바랍니다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www.twotwocom.co.kr 문의전화: 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죽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저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